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격리’ 해제 한다고?

일부 기업, 병가 안 주고 무급 휴가 적용하기도 “코로나로 며칠만 앓아...확진 안 받을 걸 후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격리 의무 아닌 권고사항 전문가 “실내 마스크 먼저”, “격리 해제는 일러”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최초 14일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7일로 완화됐다.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유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

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쉼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뀌면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아픈데 쉬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는 격리에 따른 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경기도 안산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35세)는 지난 11월2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잔여 연차가 3일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동안 잔여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남은 2일은 무급휴가 처리를 했다.

A씨는 “코로나 걸리고 하루 이틀 조금 아프고 말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확진 판정을 받지 말걸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B씨(34세)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먼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병가 제도가 있지만 연차가 없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7일 격리 의무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 6월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7일 격리 의무인 국가는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간은 5일이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은 5일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격리 의무 조정을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개별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실내 마스크가 중요하니 이 논의가 끝나면 (격리 관련 논의)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격리 해제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높아 격리 해제를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고, 7일의 격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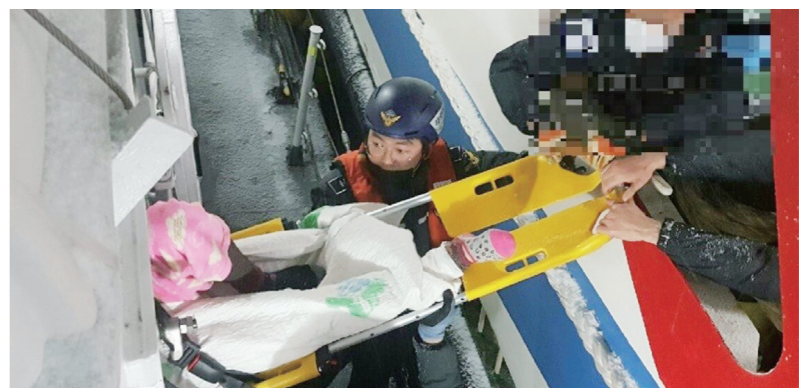
김재환기자



광주전남병무청-상무대, 업무발전 협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우)은 지난 16일 상무대 근무지원단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 등 업무발전 방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악천후 헤치고 섬마을 응급환자 4명 긴급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주말, 풍랑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섬마을 응급환자 4명이 발생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화재 취약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안전관리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관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컨테이너 전수조사 및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진도소방, 전기화재 예방 '트래킹 클리너' 운영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전기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기화재 저감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여수소방-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MOU 체결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9일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와 지역사회 안전 및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나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총경 박상훈)는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와 공동체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전남 이틀간 최대 18.9cm 눈...재산피해 잠정 7900만원 집계

비닐하우스 축사 3동·퇴비사 1동 내려앉거나 무너져

전남지역에 이틀간 대설주의보·경보,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지만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전남도 도민안전실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남지역 누적 적설량은 무안 최대 18.9cm를 시작으로 영광 17.2cm, 신안 15.8cm, 목포 14.5cm 등이다.

이틀간 내린 눈으로 인명피해나 가축 등 생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축산분야에서만 영암 오리축사 비닐하우스 2동, 무안 오리축사 비닐하우스 1동, 함평 퇴비사 1동 등 시설물 4동이 내려앉거나 일부 파손돼 7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시설물 중 2곳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사유시설물은 오는 28일, 공공시설물은 25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되자 지난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를 통해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 양식어류 월동장 이동조치, 어선 입출항 통제·결박·대피 조치, 방파제,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중점구간 집중관



리를 통한 제설, 재난문자·마을방송을 통한 도민 홍보 등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폭설이 내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드름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전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 내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횡단보도 없는 곳서 1t 냉동탑차에 치인 70대 숨져

운전자 “주변 어두워 미처 못 봤다”

20일 오전 3시 30분께 곡성군 곡성을 60번 지방도(도립사 방면)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A(77)씨가 B(45)씨의 1t 냉동탑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

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전

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미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이루,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면허 정지’ 수준

가수 이루(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조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탄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조씨와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했다”며 “후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협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